



2016년도 우리의 살갑고 도타운 정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로 만듭시다!



명씨대중회 20대 회장
명 광 길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병신년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늦게나마 지난 1월 19일 퍼시픽호텔에서 가졌던 신년하례회를 통하여 종친 여러분들께 드렸던 신년 인사말씀을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종친들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오늘, 누구보다도 승조의 마음이 깊고 종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대중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종친 여러분을 만나 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임이 더욱 자랑스롭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셔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끈끈하고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만남, 언제라도 만나면 늘 반갑고 부담 없이 즐거운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좋습니다. 오늘은 더욱 따뜻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로 이 자리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대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여러 종친 어르신들의 덕담도, 각 지방종친회의 새 소식과 희망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지방종친회 시제에 참여해주신 여러 고문님들과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시제를 돌아보며 우리 지방종친회가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보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조금씩 발전을 거듭해가는 지방종친회의 모습도, 종친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올리는 시제의 모습도 매우 정겨워 보여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종친들이 함께 모여 지방시제를 모신다는 사실에 정말로 신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제 전 훗날의 종친 간 만남도 마음을 다한 더 없이 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친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살갑고 도타운 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 우리 명씨만의 아름다운 양속으로 자리잡을 날이 머지않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종친회 회장님, 총무님을 비롯한 여러 종친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악회 회원 여러분의 자원봉사도 우리 대중회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하장학회가 2015년도 후기 대하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지난해 12월 26일 파주 경모사 대하과안기념관에서 가짐으로써 명씨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고, 장학회 설립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며 또 한 번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일은 우리의 슬기를 모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씨대중회가 올 한 해 내내 더욱 발전하고, 종친 간 화목한 정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종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년 하례회 경비를 찬조해주신 명근식 고문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종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38차 명씨대종회 정기총회 개최

2016년 5월 5일, 파주 대하파안기념관

명씨대종회는 2016년 5월 5일(목) 12:00 파주 대하파안기념관 특설행사장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명인호 사무국장의 2015년 한 해 동안 열린 주요 대종회 행사 및 결산보고, 그리고 명노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임기 만료된 명광길 대종회장의 뒤를 이어 명태식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명노석 감사의 후임으로 명영철 종친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였다.

종친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기총회 행사장에 속속 몰려들기 시작하여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각 지방종친회 단위의 대절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도착했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약 250여명.

일찌감치 행사장에 도착한 종친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종친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삼삼오오 이곳저곳에 모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종친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조 황제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나서 명씨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대하파안기념관 2층 전시장 등을 둘러보는 등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도 역시 점심식사는 많은 종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메뉴 황제탕. 황제탕은 벌써 2년여 동안이나 우리 대종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명화진 상임이사 가 꼬박 이틀 동안 정성을 다해 고아서 만들어 왔다.

행사장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황제탕과 함께 갖가지 음식과 떡, 과일, 그리고 술과 음료가 함께 놓여져 있어서 외식업체가 차린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잘 차려진 상차림이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종친들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사이사이 술잔을 건네는 등 떠들썩한 잔치집 분위기를 이어가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며 타고 온 단체버스 출발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국 각지로 돌아가는 종친들의 손에는 명위진 명예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념타올이 선물로 들려있었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제21대 명씨대중회 신임회장 선출과정 스케치

2016년 5월 5일, 파주 대하파안기념관에서 명광길 회장은 종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명광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종친들께 연휴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노고와 열성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명씨대중회 회장이란 중차대한 책임이 일면 자랑스럽고 영광도 되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늘 종친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이 탄생하여 우리 명씨대중회가 보다 더 활력이 넘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은 명순식 부회장이 맡았다.

신임회장 후보로는 보령 명재춘 종친이 추천한 명석호 고문과 인천 명환철 종친이 추천한 명태식 부회장 2명이었다.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표결 절차를 거치려 했으나, 명석호 고문이 대중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80세인 본인이 회장을 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후보사임을 밝혔고, 본인은 대중회에 여러 해 동안 참여한 원로로서 대중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극구 회장 후보추천을 사양, 명태식 대중회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제21대 명씨대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1대 명씨대중회 회장으로 선출된 명태식 신임회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본인은 남의 제의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으로 지역사회의 몇몇 단체에서 엉겁결에 회장직을 맡아본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명씨를 대표하는 문중의 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여러 종친들의 격려와 성원에 기대어 지금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보겠다고 하면서 인사말을 이어갔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명태식 대중회 부회장 제21대 명씨대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되다

명씨대중회 21대 회장 명 태 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세손 명태식입니다.

오늘 저는 제20대 명광길 회장님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라는 종친님들의 명령을 받고서 과연 제가 종친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책임감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명씨는 시조님의 늠름한 기상과 열이 우리들의 몸속에서 흐르는 우수한 혈족이기에 어려움에는 힘을 합치고 즐거움은 서로가 나눈다는 덧셈과 나눗셈의 공식과 원칙만 적용하면 안 될 것도 없다는 자신감으로 전국의 여러 종친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대중회 일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속담에 부잣집도 1년 농사지어 식구들과 먹고 쓰다보면 봄철에 된장 담을 돈 만큼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종친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명씨대중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중회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무통장입금 찬조금으로부터 오늘 이곳에서도 크고 작은 정성을 보태기 위해 줄을 길게 서있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중회 발전을 위해 단결하고, 협조하는 우리 명씨들의 자랑스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 종친들께서 제게 내려주신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저는 시간을 갖고 저와 함께 우리 명씨대중회를 이끌어갈 진용을 다시 새롭게 갖추어 생각합니다. 수범이 될 만한 타 종친회의 좋은 점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종친들과도 의논하면서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중회를 위한 더 많은 일들은 차근차근 생각하고 준비해서 여러 종친들께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중회에 대한 끊임없는 종친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간단하게 취임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대하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및 설 복지금 전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이사장 명동성, 명씨대중회 부회장)는 5월 5일 명씨대중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정기총회장과 같은 장소인 대하파안기념관에서 2016년도 전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1명에 대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생들은 정기총회 행사장 앞쪽에 자리하여 순서에 따라 장학증서를 받으며, 정기총회에 참석한 수많은 명씨 종친들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친 장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행사장의 음식을 나르고, 행사를 마친 행사장을 정리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냄으로써, 종친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장학생들에게 일찍부터 명씨 역사를 정확히 알리고, 명씨 종친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중회 임원들의 건의와 요청에 따라 대중회 행사와 함께 대하파안기념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지난 2015년 후기 장학생부터 대하파안기념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해오고 있다.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이번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증수혜방지 방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2016 설 복지금은 지난 2월 5일 8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했다.

〈명씨대중회 편집국〉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중국 현지 학생 2명에게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이사장 명동성)는 지난 3월 14일(월), 예릉 시제를 위해 우리 명씨대중회 예릉추모방문단이 중국 중경을 방문하는 것에 맞춰 중국 서남정법대학 徐聰睿, 중경 부동산 특별대학원 유충학생에게 각각 7,800위엔(한화 15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는 명씨대중회 명광길 회장이 대신했는데, 이를 지켜본 중국 측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한국 명씨가 최고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환호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명씨대중회 명노석 상임이사〉



제2회 명씨어린이 및 청소년 창작작품 공모전 시상식

명씨대중회와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주최한 제2회 명씨 어린이 및 청소년 창작작품 공모전 시상식이 명씨대중회 정기총회가 열린 5월 5일, 대하과안기념관 행사장에서 있었다.

수상자는 명수희(은상, 대천여고 1학년), 김승준(은상, 춘천 청용유치원), 명세진(동상, 홍익대 부속초 2학년) 어린이 등이었으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대상 및 금상은 해당작이 없는 관계로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은상 / 김승준 그림



명순구 교수의 시사법률 ⑤

‘효도각서’의 법적 의미

고려대 법대 교수 명 순 구

‘각서(覺書)’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혹은 그밖에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해당 행위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어떤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던 문서로 표시하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구두로 거래를 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잘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의사표시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두면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각서는 법률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각서라고 하여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착하게 살 것이다”와 같이 단순히 윤리적인 사항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반복하는 각서는 법적 의미가 없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판결을 했다. 사실관계는 대강 이런 것이다. 서울 가회동에 사는 A가 2003년 11월 시가 20억 상당의 2층 주택을 아들 X에게 증여하면서 앞으로 한 집에 같이 살며 충실하게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X에게 증여의 목적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 이렇게 하여 A와 그의 배우자는 해당 주택의 2층에서, X와 그의 배우자는 1층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X부부는 부모인 A부부와 밥상조차 같이 하지 않아 사실상 별거를 계속하여 각서상의 충실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모의 경우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X는 노모를 돌보기는커녕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했다. 참다못한 부모가 아파트를 사야겠다 마음먹고 A가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자 X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라는 악담으로 부모에게 대꾸했다. A부부는 하는 수 없어 딸 집으로 거처를 옮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법규정을 본다.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사안에서 수증자 X는 증여자 A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의무가 있는데(민법 제974조 제1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는 X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법 제558조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민법 제558조를 적용하면 X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해 준 A는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X는 A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그 이유는 이러하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서에 명시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계약조항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X는 그 수준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A와 X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증여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으로 판단했다. 즉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부담을 수반한 증여로 본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매매 등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561조). 그리고 쌍무계약의 해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을 모두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위 논리를 종합하여 대법원은, X는 A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하여 효도각서를 받아두는 일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10억기탁-

명위진 대하장학회 설립자, 청양군 명예의 전당에 흉상 세워지다

지난 5월 4일,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이석화 청양군수)는 청양문예회관에서 재단창립 5주년 기념식 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은 명예의 전당 제막식, 장학금 기탁자 흉상 제막식, 장학증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기념식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억원을 쾌척한 명위진 대하장학회 설립자 겸 명씨대중회 명예회장과 유병권 명예군수의 흉상 제막식 행사였다.

수백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기념식 행사장에는 명위진 회장의 흉상제막식을 기념

하기 위해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보내온 화환 50여개가 행사장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기념식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명광길 대중회장과 명동성 대하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과 청양의 종친 300여명이 대거 참석, 명위진 회장의 높은 뜻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미래 한국과 청양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까지 200여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청양지방중친회 명광민〉



명씨대종회

중국 중경 예릉 추모방문단, 시조 황제 시제를 모시다

명씨대종회(회장 명광길) 예릉 추모방문단 종친 43명은

2016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5박 6일)

중국 중경 예릉을 방문, 시조 명옥진 대하국 흠문소무 황제 시제를 모시고 돌아왔다

3월 13일(일) 인천공항을 떠난 추모방문단 일행은 오후 6시 55분 중경공항에 도착, 중화 명씨 대표 5명과 강북구청 전 현직 관계자 5명의 영접을 받았다. 추모방문단 일행은 버스 2대로 나뉘고 50분을 달려 이화정 식당으로 이동, 삼겹살로 늦은 저녁을 한 후, 예릉과 가까운 중경 동방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중경에 도착한 다음날인 3월 14일, 방문단 중 제물 고임새 등 시제 준비를 할 15명은 나머지 일행에 앞서 중경 강북구청에서 제공한 차량 2대와 택시 1대를 이용해서 예릉에 일찍 도착하여 시제 준비를 했다. 제례를 모실 시간이 되자 평소 한적했던 예릉은 300여명의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이들 모두는 추모방문단 일행의 제례 방식에 맞춰 일제히 시제를 올렸다. 현지 중국 사람들이 이토록 큰 관심을 갖고 시조 황제를 추모하는 것을 미루어 우리 시조 황제께서는 여전히 추앙을 받고 있는 영웅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를 지켜본 일행 모두는 시조 황제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듯 이구동성으로 시제에 참여하기를 잘했다고 입을 모았다. 시제를 마친 방문단은 명위진 명예회장이 찬조한 100만원으로 중화 명씨 대표단(명개부, 명장해 등), 그리고 강북구청 관계자 32명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다. 중국 측 인사들과 자리를 섞어 앉은 방문단 43명은 몸짓 손짓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방문단은 시조 황제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삼협박물관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월요일이 휴관인 관계로 아쉽게도 관광지인 장가계를 향해 떠나야 했다. 중경에서 장가계까지는 버스로 9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중간지역인 유양에서 1박을 했다.

3월 15일, 방문단은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산(1,528m) 관광을 했는데, 험산에 길고 긴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을 보고 놀라고, 케이블카 밖으로 보이는 기암괴석과 그사이사이에 살아 있는 나무를 보며 탄성을 연발했다.

돌 봉우리 중간에 난 천문동이라 불리는 엄청나게 큰 구멍은 비행기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각아지른 듯한 기암절벽 사이로 길을 낸 중국인들의 초인간적인 능력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스릴이 넘치는 대단한 관광이었다.

3월 16일, 방문단은 주변 경관이 너무도 아름다운 보봉호라는 곳을 유람선과 도보를 이용해서 관광을 했다.

그리고 거대한 절벽이 장관이었던 백장협, 엄청난 규모의 황룡동굴, 천자산 케이블카, 천하제일교, 백룡에리베이터, 십리화랑, 대협곡 등을 차례로 관광하고 방문단은 3월 18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대종회 사무국장 명인호〉



사진으로 보는 2015 지방시제

〈명씨대종회 명영식 상임이사〉

● 청양 시제 (2015. 11. 14, 음력 10. 3)

대종회 참석자: 회장(명광길), 명태식, 명순식, 명광주, 명화진, 명영식, 명지성, 명노석, 명제운, 명노현, 명봉식, 명노문, 명민식, 명석호, 명제만, 명환철, 명노주, 명인호(이상18명)

청양 사당인 현모재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종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린 청양시제. 청양시제는 작년 2015년부터 17세조까지 273위를 모시고 모든 시제 참가자가 제례복을 착용하고 시제를 올린다.

청양지방종친회 명효식 회장은 다음에는 더 성대한 시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양 현모재 시제〉

● 태안지방종친회 시제 (2015. 11. 15, 음력 10. 4)

대종회 참석자: 회장(명광길), 명태식, 명화진, 명순식, 명영식, 명노석, 명근식, 명민식, 명제만, 명환철(이상10명)

태안시제는 산소에서 올렸다. 시제를 마치고 참가자 일행은 명제선 종친이 경영하는 난 농원을 방문, 난실을 둘러본 후, 종친간의 우의도 다졌던 시제였다.



〈태안시제 차림상〉

● 창원지방종친회 시제 (2015. 11. 15, 음력 10. 4)

대종회 참석자: 명제운, 명노문, 명노현, 명환주, 명지성, 명인호(이상6명)

비교적 거리가 먼 창원지방종친회 시제는 참가자 모두 장거리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다녀온 시제. 명노문 고문은 다음에도 꼭 창원시제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창원 명홍조고문에게 향로와 향촉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창원지방 종친들과 화기에애하게 보낼 수 있었던 창원시제에서 창원지방종친회 종친들은 중국 예릉 시제에 많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창원시제 차림상〉



〈창원 종친과 답소〉

● 금산지방종친회 시제 (2015. 11. 22, 음력 10. 11)

대종회 참석자: 명태식, 명화진, 명영식, 명제만, 명인호(5명)

금산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어 화제가 되고 있는 주인공은 다금농장 명창환 종친이다. 그는 매년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해오고 있어서 금산 명씨 종친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15,000여 평 그의 농장에서는 한우 500여두를 현대식 자동화 시설로 기르고 있다. 장래에는 고아원을 설립, 불우한 이웃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 명창환 종친은 시제 참가 종친 5명 모두에게 인삼 6년근과 홍삼액을 선물, 종친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귀경길 수원 명태식 부회장은 종친들에게 저녁식사로 아구찜을 제공했다.



〈금산 다금농장(좌측 네 번째가 명창환 종친)〉

● 서천지방중친회 시제 (2015. 11. 22, 음력 10. 11)

대중회 참석자: 회장(명광길), 명봉식, 명민식(이상 3명)

서천지방중친회 시제를 가는 중, 부여 명제만 이사 부부는 서천시제 참가 중친들에게 미꾸라지 숙회, 닭백숙, 주류일체를 푸짐하게 제공했다. 중친들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부여 궁남지까지 나들이해서 포용정을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사진은 명제만 이사댁 앞에서의 기념사진.



〈부여 명제만 이사 자택〉



〈부여 궁남지(포용정)〉

● 고흥지방중친회 시제

(2015. 11. 24 ~ 11. 26, 음10. 14. ~ 10.15)

대중회 참석자: 회장(명광길), 명근식, 명태식, 명순식, 명인호(이상 5명)

대중교통인 버스와 KTX로 다녀오는 것이 좋은 고흥지방중친회 시제. 고흥시제 일은 덕흥이 음력 10월 14일, 신금은 음력 10월 15일로써 대중회 참가자들은 시제 전일 고흥에 가야 하는 까닭에 2박 3일을 지내게 된다.

덕흥시제는 큰 생선들을 올리는 상차림이 특색이 있다. 덕흥시제에 이어서 이튿날 올리는 신금시제는 산소에서 시제를 모신다. 전 봉래면장을 지낸 명경민 신금 중친회장이 총무까지 맡고 있다. 고흥에서 서울식당과 동백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절한 중친, 명홍성 사장은 대중회 시제 참가자 5명에게 2박 3일간 숙식을 제공해주었다. 명경민 신금 중친회장은 시제참가 중친들에게 고흥 특산물인 오미자차를 선물해 주었다.



〈고흥(덕흥)시제〉



〈고흥(신금) 시제〉



〈고흥(신금) 시제 참석자〉



〈고흥 명홍성 사장이 운영하는 동백장〉



명승권 교수의 의학 상식 ⑤

웰빙 주사, 정말 효과 있을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교수 명 승 권

몇 년 전부터 피로회복과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웰빙 주사가 개원가에서 유행이다. 대표적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비타민 주사와 마늘 주사, 피부색을 밝게 해준다는 글루타치온 주사, 피부노화 방지 및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리포아란 주사 등이 있다. 과연 웰빙주사가 주장대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까?

먼저, 포도당,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과 전해질에 비타민B와 고용량의 비타민C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타민 주사는 마이어스 카테일주사라고도 한다. 소화장애로 인해 각종 영양성분을 음식으로 섭취가 힘든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주사를 통해 이러한 영양성분을 투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있지만, 과학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피로가 회복되었다거나 피부가 밝아졌다고 이야

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우연이거나 위약효과(플라시보 효과: 약효가 없는데도 심리적인 믿음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일 따름이다. 비타민B1과 마늘냄새의 주 성분인 알리신이 결합된 푸르셀티아민이 주 성분인 마늘 주사로 불리는 주사는 신경이나 근육의 기능에 도움이 되어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피부색을 밝거나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일명 백옥 주사 혹은 비온세주사로도 잘 알려진 글루타치온 주사는 항산화기능과 함께 특히 피부의 검은색을 나타내는 멜라닌 색소의 형성 과정에서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상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문제는 보통, 설사, 드물게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약

물이나 감염에 의해 피부와 점막에 세포가 죽어 표피와 진피가 갈라지는 일종의 과민반응으로 열, 인후통, 피로가 발생한 후 구강이나 생식기 및 항문 점막에 궤양이 발생하고 전신에 홍반이 생기는 치명적인 질환), 갑상선기능 이상, 신장기능 이상 및 신부전 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알파리포익산 주사(치유평산 주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열에너지 생성으로 체지방 증가와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이 역시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각종 웰빙 주사는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으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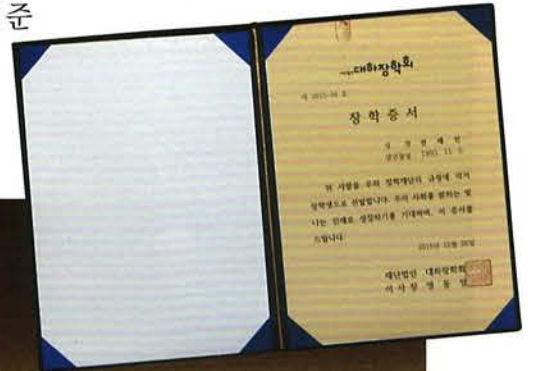
2015년 후기 대하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015년 12월 26일(토) 11:00, 대하장학회(이사장 명동성)는 파주 대하파안기념관에서 2015년 후기 대하장학생으로 선발된 8명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와 고려대 명순구 교수 가 장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특강이 있었다.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은 명씨 사당과 역사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서 대하장학회 명위진 설립자가 특별히 보내 준 발렌타인 30년산을 곁들여 가며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대하장학회 사무처〉



2015년 후기 대하장학생 선발소감을 듣는다



“명옥진 황제처럼 추앙받는 리더가 되어...”

권 해 인
(서울대학교)

안녕하세요, 권해인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때 선물 받은 소설책에 대한 짝막한 감상입니다.

"천자인가, 인자인가."

황홍방의 소설 〈중국 대하 황제 명옥진〉에서 주원장의 사람인 유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나라의 임금 은 천자인가? 아니면 인자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하 황제께서는 후자 쪽이신 것 같군요." 이에 대하국 사신 유인이란 인물이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선생이 보시기에 대하 황제께서는 그저 사천의 백성 앞에 효성스러운 아들일 뿐,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을 가진 천자는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뛰어난 임금은, 훌륭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을 가진 황제와 효성스러운 아들, 이 둘이 있다면, 황제와 뜻이 맞는 사람들은 황제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효성스러운 아들은 모두가 곁에 두고 싶어 하겠지요. '균빈부, 등귀천'을 추구했던 황제 명옥진은 스스로를 '용포를 벗으면 역시 일개 평민'이라하며, '평민이 평민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대하국을 다스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황제 명옥진은 유기가 말한 '사소하고 잡다한 일'을 사소하고 잡다한 일로 치부해 버리지 않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뛰어난 임금은 결국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몸소 실천했던 훌륭한 황제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별세 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를 기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의 삶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향을 미치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황제 명옥진을 품고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랑받는 리더, 추앙받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씨임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명 나 연
(인천대학교)

안녕하세요, 25세손 명나연입니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일본통상 4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면이 많은 저에게 큰 상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학생에 선발된 후 증서수여를 위해 명씨 가문의 사당인 '경모사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향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시조인 조상님이 중국 대하국의 '명옥진 황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씨 조상님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사당을 둘러보고 시조께 예를 올려보니 뿌리깊은 성씨라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후, 장학증 수여를 위해 사당 옆에 있는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명씨 종친회를 위해 힘써주시고 사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나서 명씨 가문의 유래를 차근차근 소개해 주셨고, '명승권 교수님'의 건강에 관한 강의와 '명순구 교수님'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하파안기념관 1층에는 명씨 유래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상영중인 동영상도 보았는데, 최근 중국과 명씨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서로 인사들을 초청해 교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앞으로 명씨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비록 일본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시각을 넓혀 중국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제 근본을 바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학업에 충실하고, 후에 명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하장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명씨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명 보 라

(경북대학교 대학원)

안녕하십니까?

2015년 후기 대하장학생으로 선발된 명보라입니다.

친척 분을 통해 대하장학생 선발 소식을 알게 되어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대학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모님께 죄송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된 대하과안기념관에서는 우리의 조상과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아왔던 제 뿌리에 대한 지식과 자부심 또한 느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주시고 장학금을 수혜하도록 해주신 대하장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고, 대하장학회 설립 취지에 맞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여 명씨 가문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장학생임을 생각하며,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명 순 주

(중앙대학교)

2015년 12월 26일, 파주의 대하과안기념관에서 열린 후기 대하장학금 수여식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저 또한 취업에 대한 고민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학생 신분인 막바지를 걷고 있는 저에게 이러한 부담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과 독립하기에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컸던 작년 12월, 제가 대하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저와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하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제 마음의 짐 또한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에게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기 보다는 '일단 취업이 먼저다'라는 생각은 한결 누그러지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대하장학금을 수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하장학생 선정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훗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을 값진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대하장학생으로 선정해주신 대하장학회 설립자님 및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대하 장학생임을 생각하며,
참 어른이 되겠습니다”**

명 일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안녕하세요?

25세손 명일호입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만 해도 코끝이 시린 겨울날이었는데 어느새 꽃향기가 코끝을 스쳐가는 하더니 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하장학회

에서 지원해 주신 장학금이 대학원 등록금에 큰 도움이 되어 기분 좋은 봄의 첫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했을 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두 가지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Next Next Next'라는 말씀이었는데,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선택한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는 시기에 매우 적절한 조언이었고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에 공헌을 위해 뜻을 세우고 공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제 모습에 굉장히 부끄러웠고 대하 장학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값진 말씀도 듣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성장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 줄 수 있는 참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종친 분들께서도 포근해지는 날씨만큼 올 한해 따뜻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을 통해 이 글을 보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대하장학생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신약개발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명 진 호

(고려대학교)

저는 2015년 11월 초에 전역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느라 지쳐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대하장학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1학년 때는 입시 보상심리로 인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만, 복학을 기다리던 시점에서 대하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저에게 '장학금 수여'이상으로 의미가 큼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주는 명씨 종친분들의 진심어린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뿌리의 근본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명씨에 대한 자부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나서 알바를 그만두고 현재는 약학대학 편입시험인 PEET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인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하장학회의 장학생으로서 이번 장학금이 일회성의 기부가 아닌 또 다른 나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명씨 가문에 감사드립니다”

김 윤 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윤애입니다. 명씨 가문의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장학금을 지원받고 그에 힘입어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명씨가문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을 이번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한푼 두푼 모아 후손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명씨가문의 후손들이 가문의 영광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라는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친회 어르신들의 뜻과 덕행을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한국사회의 역군으로 준비해감과 더불어 명씨 종친회의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려 어르신들의 자욱이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명씨가문의 모든 분들께 삼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8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 찬조금 내역(2016. 5. 5)

제38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 수입내역(무통장입금)					
순	세손	성명	금액	입금형태	기타
1		명홍성	50,000	4/12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2	22	명건식	100,000	4/12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3	23	명효진	200,000	4/15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4		명인제	100,000	4/20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5		명주영	50,000	4/22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6	23	명노희	30,000	4/28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7	모임	강진중친회	200,000	4/29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8	23	명노공	100,000	4/30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9	23	명영득	100,000	4/30통장	5월 수입금에 산입 요
10	23	명노용	50,000	5/02통장	하나은
11		명용포	100,000	5/02통장	농협
12	21	명제태	1,000,000	5/02통장	농협
13	22	명찬식	100,000	5/02통장	당감동
14	모임	부산중친회	200,000	5/02통장	당감동
15	23	명노경	100,000	5/03통장	신한은
16	24	명석병	100,000	5/03통장	농협
17	20	명위진	2,000,000	5/03통장	명예회장, 신도림
18	23	명노형	100,000	5/04통장	중계북
19	23	명노형	100,000	5/04통장	중계북
통장입금 소계			4,780,000		
제38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 수입내역 (접수대)					
1	모임	금산중친회	300,000	접수대	
2	25	명강호	100,000	접수대	광시(사무국장 6촌제)
3	23	명광민	100,000	접수대	청양
4	22	명근식	200,000	접수대	
5	21	명기호	300,000	접수대	명등포
6	23	명노성	100,000	접수대	청양 사기점길 89
7	23	명노영	200,000	접수대	고흥
8	23	명노우	100,000	접수대	청양 읍내리
9	23	명노황	100,000	접수대	청양(명노을)
10	23	명노황	50,000	접수대	
11	22	명달식	50,000	접수대	청양 비봉
12	20	명도진	50,000	접수대	
13	20	명동성	300,000	접수대	명유한
14	20	명동진	100,000	접수대	전남 강진(자헌공)
15	모임	명륜회	300,000	접수대	
16		명미래(여)	100,000	접수대	화곡동(부사공)
17	21	명병산	100,000	접수대	대전중학교개로 38-9
18		명부식(여)	100,000	접수대	방화동(부사공)

19	25	명석호	100,000	접수대	
20	모임	명성희	500,000	접수대	
21	22	명영국	200,000	접수대	명현준(자헌공)
22	25	명영준	100,000	접수대	태흥기전
23	23	명영철	100,000	접수대	
24	23	명영호	50,000	접수대	
25	22	명용식	100,000	접수대	보령
26	22	명인식	100,000	접수대	한양대
27	22	명장근	200,000	접수대	
28	24	명재인	50,000	접수대	청양 총무
29	24	명재훈	50,000	접수대	청양 윤곡 후덕리
30	21	명제광	50,000	접수대	청양 윤곡 후덕리
31	21	명제균	100,000	접수대	청양
32	21	명제만	100,000	접수대	부여
33	21	명제춘	70,000	접수대	청양
34	21	명제협	100,000	접수대	청양 군청
35	25	명제호	50,000	접수대	청양
36	21	명제희	200,000	접수대	감사
37	20	명주현	100,000	접수대	
38	24	명진웅	100,000	접수대	파주
39	22	명찬식	100,000	접수대	
40	22	명철주	100,000	접수대	
41	22	명태식	300,000	접수대	인천(부회장)
42	24	명태욱	50,000	접수대	전북 순창군 옥천동
43	22	명하식	50,000	접수대	아산
44	22	명학식	100,000	접수대	명노주
45	22	명한식	100,000	접수대	수원중친회
46	22	명한식	50,000	접수대	보령
47	21	명해관	100,000	접수대	수원
48	22	명호근	300,000	접수대	부회장
49	23	명환주	100,000	접수대	천안
50	23	명환철	100,000	접수대	청양 윤곡 후덕리
51	23	명환철	100,000	접수대	인천
52	23	명효남	100,000	접수대	수원
53	22	명효식	100,000	접수대	청양 회장
54	22	명후식	50,000	접수대	부산
55	22	명홍식	50,000	접수대	
56	23	명희철	100,000	접수대	보령
57	모임	보령화사회	300,000	접수대	
58	모임	창원중친회	500,000	접수대	명판식 회장
59	모임	청양중친회	300,000	접수대	
접수대 수입 소계			8,120,000		
총합계 금액			12,900,000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수혜 제한 방침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 납부액을 초과하여 받는 장학금 및 대출에 대한 반환 및 상환 처리 등 장학금 이중수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하장학회는 장학금을 등록금 명목으로, 본인의 실 납부액 안에서만 지급하게 된다.

만일 학생이 장학금을 이중수혜 할 시에는 차기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기관, 즉 우리 대하장학회는 행정경고와 함께 벌금 처분되므로, 차후 장학금을 신청할 예비 장학생들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광주〉

명씨대중회 신임감사에 명영철 종친 선출

명 영 철 신임감사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감사로 선출된 명영철 종친.
명영철 신임 감사는 그동안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명씨대중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온 열성 종친 중의 한 사람이다.
새로 선출된 명영철 신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명씨대중회보 문의 및 구독 신청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 adpromyung@naver.com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순구 010-4007-1847

이메일 : skmyoung@korea.ac.kr

• 명씨대중회 사무국장

명인호 010-2381-8426

이메일 : myin8282@naver.com